“선의 묘미 증감 없음에 있어”

㊻ 다선일여

조주 선사 ‘끽다거’ 차로 무심 · 무집착의 세계 보여줘
차향처럼 선의 세계도 그윽해 표현하기 어려워 ‘다선일여’

중국인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다경>을 지은 육우(陸羽, ~804) 때부터 일반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흔한 일을 ‘다반사(茶飯事)’라고 하듯이 중국인들에게 차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하나입니다. 선승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말(唐末)의 조주 선사(778~897)는 워낙 차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융숭하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말하자면 차(茶) 법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끽다거(喫茶去, 차 한잔 드시죠)’라는 말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다선일여(茶禪一如)’란 ‘차(茶)와 선의 세계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선일미(茶禪一味)’라고도 합니다. 차와 선의 맛이 똑같다는 뜻인데, 음식과 음식의 맛이 똑같다면 이해가 되지만, 차와 선의 맛이 같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차 맛이 어느 정도이길래 선과 같다는 것일까?

먼저 차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작설차(雀舌茶)’란 그 뜻이 차 잎이 참새(雀) 혓바닥 정도만 했을 때 따서 만든 ‘차(茶)’라는 뜻입니다. 작설차에는 곡우 전에 따서 만든 우전차(雨前茶)와 세작(細雀, 작은 잎), 중작(中雀, 보통), 대작(大雀, 큰 잎)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우전차와 세작이 가장 좋습니다.

참새 혓바닥 정도 자랐을 때 따서 만든 세작(細雀, 작은 잎)이나 우전차를 70~80도의 물에 우려서 찻잔에 담으면 빛깔과 향과 맛과 아주 그윽합니다. 한 모금 입에 넣으면 그 느낌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하는 감탄사 밖에는 별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직접 달여서 마셔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냉난자지(冷暖自知)’라고 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더운 지는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인데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괜한 호사치레라고 타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향은 우전차나 세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도 있습니다. 원두커피를 잘 내려서 한 모금 입에 넣으면 커피 향이 입 안에 가득합니다. 그 커피 향을 당신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오감으로 느끼기는 해도 막상 뭐라고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선일여(茶禪一如)’란 차의 향도 그윽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선의 세계도 그윽해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미(一味), 또는 일여(一如)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세계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이고 ‘언어도단(言語道斷,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차시(茶詩)를 하나 감상해 볼까 합니다.

조주 선사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차를 대접했네.
趙州道箇喫茶去
하지만 그는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네.
一滴何曾濕口脣
조주가 수없이 차를 달여 마셨지만 여전히 차향은 남아 있고
趙州喫去尙留香
육우가 수 없이 달여 마셨지만 양(量)은 하나도 줄지 않았네.
陸羽煎來不減量

이 시(詩)는 차의 세계와 선의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1, 2구에서 조주 선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했지만 정작 그는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다는 것은 무심, 무집착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차를 대접했다면 당연히 그 역시 차를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다는 데서 무심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조주 선사가 마음에 ‘한 잔’이라도 마셨다는 생각이 남아 있다면 그의 ‘끽다거’는 화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선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 4구는 더욱 좋습니다. 선승 조주와 다성(茶聖) 육우가 평생 동안 끓여 마셨는데도 여전히 차 향이 남아 있고 양(量)도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데서, 마치 <반야심경>에 나오는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더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諸法空相 不增不減)”는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선의 묘미는 이런데 있습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오?”

㊻ 떡장수 할머니

덕산 스님 일깨운 떡장수 할머니의 ‘삼세심 불가득’
일체 차별경계 초월해 무심으로 사는 도리 일깨워

우리가 ‘점심 먹자’고 할 때의 ‘점심(點心)’이란 말에는 두 가지 어원이 전한다.

하나는 중국 남송 때 한세충(韓世忠)이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양홍옥(梁紅玉)의 말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금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양홍옥이 손수 만두를 빚어 나눠주었다. 하지만 군사가 많아서 넉넉히 나눠줄 수 없자 “만두의 양이 많지 않으니까 마음(心)에 점(點)이나 찍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기충천한 송나라 군대는 10만 대군을 맞아 8000의 병력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점심’의 또 다른 어원은 선종어록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인 ‘떡장수 할머니(老婆)’에게서 유래했다. 용담숭신(龍潭崇信, ?~850) 선사의 우바이 제자로 추정되는 할머니는 덕산선감(德山宣鑑, 780~865) 선사를 한 수 지도해 준 ‘점심 공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덕산의 몽둥이(德山棒)’로 유명한 덕산은 20세 때 구족계를 받고 율장을 배웠다. 그리고 <금강경>을 깊이 연구해 ‘주금강(周金剛)’ 또는 ‘주금강왕(周金剛王)’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30세가 된 어느 날 그는, 남쪽에 가면 “마음이 곧 부처이다”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 그 본성을 보게 해 부처가 되게 한다(直指人心 見性成佛)”는 돈오선 수행자들을 혼내주기 위해 <금강경> 주석서(疏抄)를 메고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마침 그가 여주(澧州)에 이르자 점심 때가 돼 떡집에 들어가 주인 할머니에게 점심으로 떡을 주문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물었다.

“메고 온 것이 무엇이오?”

“<금강경> 주석서요.”

“내가 스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답을 하면 떡을 거저 드리겠소. 만약 대답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 떡을 사 드시오.”

덕산 선사가 자신 있게 물으라고 하자, 할머니가 물었다.

“<금강경>에 설하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點)을 찍겠습니까?”

덕산 선사는 말문이 막혔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점을 찍을 수 없고, 현재는 일초도 기다리지 않고 흘러가 버리니 실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할머니는 용담숭신 선사가 주석(住錫)하고 있는 용담(龍潭)을 안내해줘서 덕산 선사는 그곳을 찾아갔다. 어느 날 밤 용담 선사가 물었다.

“어째서 돌아가지 않는가?”

“어둡습니다.”

이에 용담 선사가 호롱불을 켜서 덕산에게 주었다. 덕산이 받으려는 순간 용담 선사가 훅 불어 꺼버렸다.

이에 덕산이 엎드려 절을 하니 용담 선사가 다시 물었다.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덕산은 지금부터 노 선사의 말씀을 의심치 않겠나이다.”

덕산은 이윽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용담(龍潭)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래인데 막상 와 보니, 못(潭)도 없고 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찌합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지금 용담에 와 있느니라.”

이 말에 덕산은 문득 깨우침을 얻어 30여 년간 스승 곁에 머물면서 보임하다가 법을 이어받았다.

이 일화에서 떡장수 할머니는 알음알이를 자랑하던 덕산 스님의 아상(我相)을 꺾으며 ‘얻을 바 없는 진리(無所得法)’에 대한 분발심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식 역할을 했다.

할머니가 화두로 던진 ‘삼세심(三世心) 불가득’ 공안은 “삼계가 무법인데 어디서 마음을 구하랴!(三界無法 何處求心)”(벽암록)라고 한 반산보적 선사의 공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체의 만법은 무자성(無自性)이기에 텅 비어 공(空)하다고 하고, 또 무법(無法)이라고 하며, 인연화합으로 생한 법이 본래는 생한 바 없기 때문에 무생(無生)임을 설한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여래를 보리라”(<금강경>)고 설한 것처럼 일체의 차별경계를 초월한 무심으로, 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며 살아가는 도리를 일깨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 **‘승만경’ 독송**=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7시~9시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승만경> 독송을 한다. 승만부인 10대원 독송, 前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의 <승만경> 강의와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02)722-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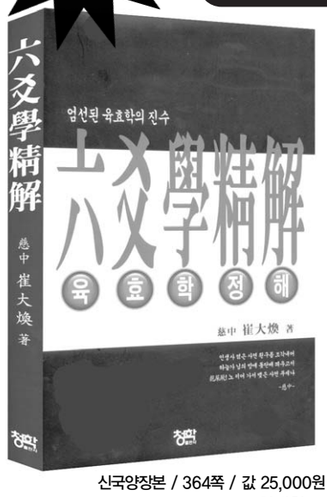
● **‘12연기와 위빠사나’ 법회**=한국위빠사나선원이 2009년부터 월 1회 대구, 경주에서 ‘12연기와 위빠사나’ 법회를 개강한다. 대구 법회는 첫째 주 일요일 대구구도회에서 진행되며 경주 법회는 첫째 주 월요일 경주 배동 정각사에서 열린다. (02)512-5258

● **한달 집중수행**=연방죽선원은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24일까지 봉화 담마로카에서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법주 스님, 바다 스님이 지도하고, 수행참가 인원은 7명으로 일주일 이상 참가 가능자만 신청 가능하다. (010)3214-1255

● **위빠사나 · 사마타 수행 지도**=붓다선원은 12월 25~29일 연기 지장사에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김열권 법사는 경전에 따라 개인에 맞는 사마타(선정 · 止)와 위빠사나(지혜 · 觀) 수행법을 지도한다. 동참비는 10만원. (041)868-3119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이 시대에 앞서가는 전통 침뜸 의학(동양의학, 경락 경혈학) 초급반 모집
침뜸은 고령사회에 가장 탁월한 의술이다.
체질 개선의 예방 의술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 치료 의술
만성병 퇴행성 질환에 탁월한 치료
언제나 어디서나 자가 치료 가능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다
세계적으로 침술 활용 확산
우리 나라 전통의술
전국은 지금 침.뜸에 열풍중
본인이나 가족중에 중풍,당뇨,고혈압,각종성인병질환,심혈관질환,순환계질환,어깨저림,척추질환,전립선,부인병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동양의학과 경락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 대체의학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자신있게 적극 권합니다.
가정에서 응급 처치법으로 필수 !!
● 과정 : 초급(침구기초이론) 3개월, 중급(취혈 및 진단학) 3개월, 고급(임상실습) 5개월
월 · 수반, 화 · 목반 오후 2시 ~ 5시, 저녁 7시 ~ 10시. 매월 초 개강【수시모집】
자세한 수업내용과 시간은 상담 문의 바랍니다.
중의침구사 과정, 양성지도자 과정, 연수과정 모집
중의침구사자격증 획득반, 의사고시반 자격증 초급반 모집
목원 아카데미 MOKWON ACADEMY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7-143 진빌딩 301호(지하철 3호선 1번출구 100m)
TEL 02)2233-8803 / FAX 02)2231-8878

六爻學精解
육효학정해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엄선된 육효학의 진수!
초보에서 완성까지!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목차부터 배우기 쉽도록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며 육효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학문을 연구하거나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국양장본 / 364쪽 / 값 25,000원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 전문가 과정 교수 최대환 저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육효학정해〉 저자 직강 !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청학출판사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